

##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방안\*

이병규\*\*

### 〈목 차〉

머리말

- I.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유산 지정현황
  - II.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 III.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위치 검토
  - IV.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문화유산 지정방안
- 맺음말

### 〈국문초록〉

완주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건은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대둔산 농민군의 항쟁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바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이다.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후 조선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30일 완주군과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주관한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의 국왕을 볼모로 하여 내정간섭이 심해짐에 따라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봉기의 장소가 바로 삼례였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보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삼례에서 있던 2차 봉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봉기터 위치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록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삼례역에 도착하여 모병본부를 이곳에다 정하였다’는 것과 「전봉준공초」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대도소로 삼았다’라는 기록으로, 2차 봉기터를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차 봉기터의 정확한 위치는 조선시대 지도, 1895년 지형도, 1915년 지도, 1914년 지적도를 종합해 볼 때 삼례리 1072번, 1073번지, 1074번지 일대라고 보여진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삼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는 향후에 사적 즉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이 그 역사적 위상에 맞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에 대한 종합적 학술용역, 관련 자료 수집 및 학술대회 개최, 해당 유적지의 발굴,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의 과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국가문화유산, 삼례, 전봉준, 유적지

##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현재 완주군은 전주부와 고산현에 속해 있었으며 삼례역은 전주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산군이 통합되어 전주군이 설치되었고,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개칭되어 15개 면을 관할하면서 완주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출범되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완주지역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완주지역에서

전개된 중요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건은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대둔산 농민군의 항쟁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바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이다.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후 조선의 국왕을 볼모로 하여 내정간섭이 심해짐에 따라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봉기의 장소가 바로 삼례였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보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삼례에서 있던 2차 봉기 장소가 어디였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도 못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의 위치를 확인하고 향후 문화유산 지정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의 문화유산 지정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유산 지정현황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국가 7건, 광역지자체 10건, 기초지자체 6건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향토 유산 지정현황

광역	기초	명칭	지정일	지정번호	지정사유
전북	정읍시	사발통문 작성터	2016.07.26.	제6호	사발통문을 작성한 집터
		동학혁명 모의탑	2016.07.26.	제7호	사발통문 서명자 후손들이 1969년 건립한 기념탑

광역	기초	명칭	지정일	지정 번호	지정사유
		만석보혁파 선정비	2016.07.26.	제8호	1898년 고부군수 안길수가 만석보를 혁파하자 고부민들이 세운 선정비
		전봉준 단비	2016.12.21.	제12호	1954년 천안전씨 종중에서 전봉준을 기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 세운 단과 비
충남	당진시	승전목 전승지	2018.06.28.	제10호	충청도 내포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충청도 당진 전투지
충북	옥천군	동학혁명 유적지	2009.12.28.	제2009- 2호	1894년 9월 18일 최시형이 총기포령을 내린 곳 (충청도 청산)

〈표 2〉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시도 유산 지정현황

광역	기초	유산 명칭	지정일	지정 번호	지정사유
강원	홍천군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1977.11.28.	제25호	동학농민군의 홍천 풍암리 자작고개 전투지
경기	여주시	해월 최시형 선생묘	2021.05.13.	제228호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묘지
경남	하동군	하동 고성산성	1994.07.04.	제142호	동학농민군의 하동 고성산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지
전북	정읍시	만석보터	1976.04.02.	제33호	고부군수 조병갑이 과중한 수세를 부과한 만석보터
		말목장터와 감나무	2001.04.27.	제110호	고부관아를 공격하기 위해 집결한 곳으로 고부봉기의 시작
		고부관아터	2005.06.03.	제122호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으로 고부농민들이 관아를 공격
	완주군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 명 전적지	2015.12.28.	제131호	문헌에 기록된 동학농민군 최후 항쟁지이 대둔산 전투지

광역시	기초	유산 명칭	지정일	지정 번호	지정사유
	김제시	원평 집강소터	2017.07.07.	제137호	전봉준과 김덕명이 관민협치를 실행한 금구 원평 집강소터
	고창군	전봉준 생가터	2021.04.09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 생가터
충북	청주시	청주 손병희 생가	1979.09.29.	제30호	동학 3주교주 손병희 생가

〈표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국가사적 지정현황

광역시	기초	문화유산 명칭	지정일	지정 번호	지정 사유
전북	정읍시	정읍 전봉준 유적	1981.11.28.	제293호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1894년 거주지
		정읍 황토현 전적	1981.12.10.	제295호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싸워 승리
	부안군	부안 백산성	1998.09.17.	제409호	백제토성 지정(농민군 백산봉기 부기)
	고창군	고창 무장기포지	2022.05.02		전봉준, 손화중이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시작
전남	장성군	장성 황룡 전적	1998.06.10.	제406호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경군과 싸워 승리
	장흥군	장흥 석대들 전적	2009.05.11.	제498호	동학농민군 최후전투지로 많은 농민군이 목숨을 잃음
충남	공주시	공주 우금치 전적	1994.03.17.	제387호	동학농민군이 관군 및 일본군과 싸워 패배한 동학농민혁명 최대 전투지

〈표 1〉, 〈표 2〉, 〈표 3〉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향토(기초), 광역(시도), 국가 사적의 문화유산 지정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의 향토유산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북 정읍에는

사발통문 작성터, 동학혁명모의탑, 만석보혁파선정비, 전봉준단비 등 4건이 있으며, 충남 당진에는 승전목전승지 1건, 충북 옥천에는 동학혁명 유적지(최시형이 기포령을 내린 곳) 1건이 있어 전국적으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지 않다. 전북 완주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없다. <표 2>의 시도유산은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것이다. 강원 홍천군의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경기 여주시의 해월 최시형선생묘, 경남 하동군의 하동 고성산성(전투지), 전북 정읍시의 만석보터·말목장터와 감나무·고부관아터, 전북 완주군의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전북 김제시의 원평집강소터, 전북 고창군의 전봉준생가터, 충북 청주시의 청주 손병희 생가 등이 시도유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강원, 경기, 경남, 충북에서 1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인 전북에서 정읍, 완주, 김제, 고창 등에서 6곳이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다행스럽게도 완주군의 경우 대둔산 전적지가 전북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표 3>의 국가사적은 국가(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한 것이다. 총 7건이 지정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1894년 거주지인 정읍 전봉준 유적,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정읍 황토현 전적, 동학농민군의 백산봉기터인 부안 백산성, 전봉준, 손화중이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를 시작한 고창 무장 기포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경군과 싸워 승리한 장성 황룡전적, 동학농민군 최후전투지로 많은 농민군이 목숨을 잃은 장흥 석대들 전적, 동학농민군이 관군 및 일본군과 싸워 패배한 동학농민혁명 최대 전투지인 공주 우금치전적 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물유적은 전봉준유적 1건, 집결지는 무장기포지, 백산성, 2건, 전투지는 황토현 전적, 황룡전적, 우금치전적, 석대들 전적, 4건이다. 이렇게 지정된 국가사적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봉기터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더 참담한 것은 2차 봉기터는 시도유산이나 향토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완주지역 관계자들의 깊은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관심을 가지고, 외치고, 시간과 공력을 들여 무엇인가를 해야만 결과가 나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언급하고 알려야만 역사적 의미가 되살아난다. 예를 들자면 고창군은 무장기포지지와 전봉준생가터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10년 동안에 걸쳐 수십번의 학술용역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겨우 지정받을 수 있었다. 고창무장기포지는 국가사적으로 전봉준생가터는 전북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바로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확한 위치를 정하지 못하면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터의 정확한 위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2차 봉기터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이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교조신원 삼례집회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 1. 교조신원 삼례집회

1860년 동학이 창도되고 1864년 최제우가 처형되었지만 이후 동학은 최시형이 이어받아 교세가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1890년에 이르러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동학도가 늘어나게 되자 폐단이 나타났다. 아직 조선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받지

못한 동학을 믿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에 따라 관리들은 동학을 믿는다는 것을 빌미로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였다. 이렇게 되자 급격하게 교세가 확장된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교단은 새로운 움직임 보이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교조신원운동, 즉 동학공인운동이었다.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 10월 공주집회부터 시작되었다. 동학공인운동은 이후 삼례집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동학공인운동은 광화문복합상소, 께서사건, 보은집회, 금구집회 등으로 이어졌다. 동학공인운동은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교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동학공인운동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었다. 그들이 바로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이른바 사회개혁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동학공인운동 과정에서 교류하면서 조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배경에는 19세기 조선 사회의 수탈구조와 경제적 변동이 있었고, 여기에 동학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져 사상과 조직의 형성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개혁세력이 주체세력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삼례집회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학공인운동의 첫 번째 집회는 1892년 10월 충청도 공주(公州)에서 열렸다. 동학교단의 지도부로 새롭게 등장한 서장옥, 서병학 등은 제2대 교주 최시형에게 교조 최제우에 대한 신원운동을 전개하자고 요청하였다. 즉 최제우가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이를 조선정부가 인정해준다면 결국 조선정부가 동학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서장옥과 서병학 등의 요구에 대해 최시형은 이를 받아들여 공주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주집회는 동학교단내의 서장옥과 서병학 등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주도하였고, 최시형은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92년 10월, 동학교도 1,000명은 공주에 있는 충청감영 앞에 모여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문서를 올렸다. 이 문서에서 동학교도들은 “근래 서양의 요사스러운 학문이 들어와 두메산골의 평민에게까지 미쳐 삼강의 본분과 오류의 질서가 있는 바를 알 수 없게 되니, 선생(최제우)께서 유불선 3교의 장점을 취하여 무극대도(無極大道; 동학)를 펴고 옛 것을 계승하여 미래를 여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도를 전했으나, 사교(邪教)로 몰려 죽임을 당한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신원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일본과 서양오랑캐의 해독에 대해 분노하며, 성심수도를 통해 광제창생(廣濟蒼生)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원할 뿐이다.”<sup>1)</sup>라고 하면서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임금에게 최제우의 신원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충청감사 조병식은 동학은 정학(正學)이 아니라 사학(邪學)이며 동학을 금한 것은 조정에서 할 일이므로 감영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답을 주었다. 말하자면 동학공인을 임금에게 올려달라는 동학교도의 요구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충청감사 조병식은 충청도 각지에 문서를 하달하여 동학은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지만 동학을 금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폐단을 일체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 동학교도 입장에서 신원에 대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충청감사의 문서가 하달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동학교단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로 당시 동학교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전라도에서 전라감영에 문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례집회이다. 이 삼례집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2대 교주 최시형은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섰다. 동학교단은 1892년 10월 27일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와 바로 인접한 삼례역(參禮驛)에서 도회소(都會所)를 설치하

1) 「의송단자(錦營)」, 1892년 10월,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 (표영삼, 『해월의 고난 역정-동학 2』, 통나무, 2014) 재인용

고, 각 지역 동학교도 책임자들에게 경통(敬通) 즉 통문을 보내 교도들과 함께 삼례역에 모일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발송된 경문의 주된 내용을 보면 “…… 우리들은 대선생(최제우)의 제자로서 누가 원통함을 풀고 분함을 설욕하려는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39년 동안 지목을 받으면서 마치 죄지는 사람처럼 엎드려 왔던 것은 천운(天運)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충청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전라감사에게 의송단자(飡狀)를 내는 일도 또한 천명(天命)이다. 각 포(包)의 여러 접장(接長)들은 일제히 와서 모일 일이다. 만일 알고도 와서 모이지 않는다면 어찌 가히 수도하고 오륜을 강(講)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임진 10월 27일 밤 전라도 삼례도회소”<sup>2)</sup>라고 하여 집회참여를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다. 이는 당시 동학교단의 힘이 강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학교단의 의지도 매우 굳건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전라도 대부분의 지역과 그 외 전국에서 수천명이 삼례에 집결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1월 2일에 전라감사 이경직(李耕植)에게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문서를 제출한 주체가 전봉준이라는 점이다. 관련 기록인 『남원종리원사 부동학사』에 “대선생 신원하기 위해 각도(各道)의 교인이 전주 삼례역에 모였을 때 … (전라)좌도의 유태홍(柳泰弘), (전라)우도의 전봉준씨가 자원 출두하여 관찰사에게 솟장을 제출하였다”<sup>3)</sup>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삼례집회를 기점으로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는 전봉준 등 전라도의 사회개혁세력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전라감사에게 제출한 문서는 충청감사에게 제출한 문서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죽은 최제우를 신원해 달라는 것과 동학교도들에 대

2) 「경통」, 1892년 10월 27일,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 (표영삼, 2014, 『해월의 고난 역정-동학 2』, 통나무) 재인용

3) 「종리원사 부동학사」,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한 침탈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라감사는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자, 삼례에 모여 있던 동학교들은 11월 7일에 재차 답을 달라는 독촉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전라감사는 모두 물러가서 새 사람이 되는 답변만 하였다. 전라감사는 한편으로 전라도 각 읍에 문서를 보내 동학금지를 이유로 동학교들의 재물을 탈취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교단은 11월 12일, 각지의 교도에게 “이번 대선생의 신원은 힘쓴 만큼 성과는 얻지 못했으나 제자로서 취할 처신과 행사는 도리에 합당했다. 천리(天理)에 어김이 없어야 가히 신원을 얻을 것이니 이제부터 더욱 힘쓰자. 이번에 모인 것으로 사방에 좋은 평판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충청·전라감영에서 또한 공문을 하달하였으니 이제부터 동학교도에 대한 지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각도 각읍에서 다시 동학교도라 하여 지목한다면, 가벼운 것은 인근 각 접(接)에 알려 솟장을 만들어 해당 관아에 내고 큰 것은 도소(都所)에 알려져 법헌께 보고, 감영에 의송하여 바로 잡도록 하라. …… 임진 11월 12일 완영도회소(完營都會所) 4) 와 같이 경통을 발송하였다. 이 경통에서 삼례집회를 주도한 동학교단의 지도부는 삼례집회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교조 최제우의 신원운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면서 삼례에 모인 교도들에게 해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삼례집회는 공식적으로 끝을 맺었다. 삼례에 설치되었던 동학 지도부는 철수하였다. 그렇지만 삼례에 모인 일부 동학교도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이는 11월 21일자 전라감사가 내린 공문에서 ‘동학교도들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 안접(安接)하지 않고 있다.’5)고 한데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삼례의 동학교도들은 관의 해산명령이나 동학교단의 해

4) 「경통」, 1892년 11월 12일,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 (표영삼, 2014, 『해월의 고난 역정-동학 2』, 통나무) 재인용

5) 「감결」, 1892년 11월 21일,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 (표영삼, 2014, 『해월의 고난 역정-동학 2』, 통나무) 재인용

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삼례집회에서 동학교단과 구별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이 삼례집회 참가를 계기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력화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봉준을 중심으로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는 사회개혁들이 이 삼례집회를 계기로 세력화했다고 보여진다. 이점을 주목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뿌리가 삼례집회에서 배태되었다고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삼례에서 교조산원운동 삼례집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1894년 6월 일본은 경복궁을 침범하고 이어서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하면서 조선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사회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동학농민군은 이러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농민군은 그동안 집강소를 통해 폐정 개혁활동에 전개하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침략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동학농민군은 전봉준(全捧準)을 중심으로 2차 봉기를 결정하고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1894년 9월, 다시 봉기의 횃불을 들고 전라도 삼례(參禮)를 집결지로 정하였다.

일본의 조선침략은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은 경복궁 점령사건과 청일전쟁 도발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해 당시 조선 민중은 분노했다. 1894년 8월 27일, 전라감사 김학진은 고부·고창·금구·무장·장성·흥덕·태인·함평·부안·정읍 등 10개 고을에서 군기를 빼앗겼다고 조선정부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9월 초 서울에서는 ‘양호(兩湖)의 동학도가 무리를 모아 서울로 향하는데 장차 보름쯤에는 서울을 범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민군과 조선 백성들의 봉기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중요한 거점에 일본병참부를 건설하면서 조선인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이에 반항하여 조선인 1백 여 명이 봉기하였다. 안동(安東)·풍산(豊山)에서는 일본병참부 습격을 목적으로 3천 여 명의 농민군이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 지도부 역시 일본군의 야욕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전봉준(全奉準)은 ‘일본(日本)이 개화(開化)라고 일컬어 애초부터 일언반사(一言半辭)도 없이 민간에 전파하고, 또 격서도 없이 군대를 도성에 끌어들이며 밤중에 왕궁을 격파하여 왕을 놀라게 하였다 하기에 초야에 묻힌 사민(士民)들이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강개하지 않을 수 없어 의병을 규합해서 일인(日人)과 접전하게 됐다.’라고 2차 봉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봉준은 재판과정에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2차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초기 단계에서 전봉준(全奉準)은 ‘일본군(日本軍)과 조선정부의 동향을 지켜보며 기병에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은 항상 전면적 봉기를 고려하여 사전작업을 전주화약(全州和約) 이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전라도 각 지방을 돌며 집강소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농민군에게 적대적인 각 군현 수령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방의 전 현직 관리들과 재야의 유생, 관군에게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동족간의 골육상쟁을 지양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봉준(全奉準)은 또 각 지역 동학농민군 조직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전라우도와 전라좌도 농민군 간의 연대를 위해 남원으로 이동하여 김개남과 함께 남원(南原)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전봉준(全奉準)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모병에 대한 강제성 여부’를

묻는 재판관의 신문에 '자신이 거느린 4천명은 자원자이고, 그 외 각 처에 통문으로 뜻을 전하고 만약 불응하는 자는 불충무도.'라고 진술하여 그가 일본군에 대항할 의병을 모집하는 통문을 돌려 2차 봉기에 대한 자신의 호소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모았고, 이들은 전라도 각지에서 삼례(參禮)에 속속 모여들어 2차 봉기를 위한 동학농민군이 구성되었다.

동학농민군이 삼례(參禮)를 제2차 봉기의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삼례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었다. 삼례는 전주부(全州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도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삼례는 또한 당시 거주하는 백성이 많지 않았지만 주막이 많고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많은 수의 농민군이 숙식을 해결하기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삼례 2차 봉기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각 고을 단위로 보수 세력들이 농민군에 대항하기 위한 민보군을 조직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반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유력한 농민군 지도자가 파견되어 반농민군 세력을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손화중·최경선은 광주(光州)·나주(羅州), 김개남(金開南)은 전라좌도를 관할하는 남원(南原), 김인배(金仁培)는 순천(順天)·광양(光陽)에 머물며 반농민군 세력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2차 봉기에 합류한 동학농민군은 정읍(井邑)·고창(高敞)·전주(全州)·김제(金堤)·부안(扶安)·익산(益山)·삼례(參禮) 등 전라우도 일부지방이 중심이 되었고, 그 밖의 전라좌도를 비롯한 상당수 전라도 농민군들은 바로 합류하지 못하였다.

제2차 봉기에서는 충청(忠淸)·경상(慶尙)·강원(江原)·경기(京畿)도 지역에서 농민군들이 자발적으로 대거 가담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을 단위로 하여 기포하였기 때문에 전봉준(全琫準)이 이끄는 농민군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2차봉기의 가장 중요한 준비과정은 전투에 사용될 무기와 군량미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전봉준(全琫準)은 군수전(軍需錢)과 군량미를 확보하라는 통문을 각지에 돌렸다.

9월 9일에는 금구(金溝)에서 동학농민군 3백 여 명이 고산(高山)에 들어가 역시 군기고에서 군기와 물품을 탈취하였으며, 9월 13일에는 삼례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이 여산(礪山) 군기고를 점령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전주외곽 위봉산성의 군기고의 무기를 탈취하였다. 이와 함께 태인(泰仁)에서는 ‘지금 이런 거사는 몹시 커서 비용이 많이 들므로 공곡(公穀)과 공전(公錢)을 이용해야겠으니 군수미 3백석과 동전 2천량을 밤사이 금구 원평의 도회소로 수송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문이 발견되기도 했다. 삼례도회소 혹은 남원대도소(南原大都所) 이름으로 된 비슷한 내용의 통문은 김제(金堤)·남원(南原)·능주(綾州)·광주(光州)·군산(群山)·고산(高山) 등 전라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 3. 2차 봉기 이후 고산 농민군 활동

2차 봉기 이후 고산 지역에서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고산 동학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의 전투가 고산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11월 22일 [同日]

교도 중대장이 보고합니다. 이달 12일에 금산읍에 도착하였으며, 그 다음날 13일에 일본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少四郎)는 주력부대를 이끌고 진산(珍山)으로 향하였습니다. 교도소 병사는 일본군 중위 히라기 조다로(白木城太郎)와 함께 행군하여 14일에 용담(龍潭) 위의 조림(照林) 장터에 도착하여 몇 천 명인지 알 수 없는 저들 무리와 접전하여 30여 명을 사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포한 동도 20명 가운데 서도필(徐道弼)·박만호(朴萬浩)·이만실(李萬實)·조운삼(趙允三)·박치팔(朴治八)·김윤일(金允一) 등 6명은 소란을 많이 일으켜 몹시 망측하였기 때문에 모두 총살하고 그 나머지는 타일러서 풀어주었습니다. 16일에 진안읍(鎭安邑)에 도착하여 또 저 무리 수천 명을 만나 한바탕 접전하여 수십 명을 사살하

고, 17일에 고산(高山) 산천리(山川里)에 도착하여 저 무리 수백 명과 접전하여 30여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18일에 고산읍(高山邑)에 도착하여 또다시 저 몇 만 명인지 모르는 무리를 만나 한바탕 싸워서 수백 명을 사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포한 동도 30명 가운데 이른바 접사인 고산에 거주하는 이만학(李晩學)·여관서(呂寬西), 진안읍에 거주하는 김치서(金致西) 등 3놈을 우선 잡아 가두고 창성도(倉聖道)·임성원(林聖元)·김중이(金仲伊) 등 3명은 총살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타이르고 풀어주었습니다. 교도소 병사와 일본병사는 한 사람도 다친 이가 없었습니다. 각처에서 접전할 때에 탈취한 여러 군수품은 법대로 그곳 읍에 두어야 하지만 읍이 빈 곳이 많아 후환이 있을까 염려되어 총 200자루·창 300자루를 깨부수고 화약 100여 근은 물에 띄우고, 탄약 10여 말은 주조하고 그 나머지 긴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또한 태워버릴 계획을 급히 보고합니다.<sup>6)</sup>

이 자료는 양호선봉장(兩湖先鋒將) 이규태(李圭泰)가 2차 동학농민혁명 진압과정에서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2월 5일까지 각처와 주고받은 공문들을 수록한 『순무선봉진등록』이다. 1894년 11월 22일 교도중대장이 이규태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관군과 일본군은 11월 17일 고산 산천리에서 동학농민군과 크게 전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 30여명이 전사하였다. 이는 매우 큰 규모의 전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산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장소는 바로 고산 산천리로 지금의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천마을이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아수목원 입구 마을이다. 그리고 관군 및 일본군이 11월 16일 진안에 있다고 고산으로 왔으므로 그 이동 경로에 있는 산천리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투과정에서 30여명이 전사했다면 이 때의 동학농민군의 규모는 매우 컸을 것으로

6)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권, 2006.

집작된다. 그리고 11월 18일 고산읍에서 역시 큰 전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군이 목숨을 잃었다. 고산에서도 역시 전투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산천전투지와 고산전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산천전투지(화약제조소)와 고산 전투지

고산농민군의 활동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화약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서 확인된다.

粟谷邑附近 戰鬪詳報

(1894년 12월 13일)

中尉 白木誠太郎

1. 12일 전투로 賊徒는 사방으로 흩어져 그 종적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枝隊는 목적인대로 高山縣을 향해 출발·전진하였다.
2. 13일 오후 3시쯤 粟谷邑 동쪽 약 200m 되는 곳에서 고산현으로부터 오는 지방민을 잡아 심문했더니, 그 읍에는 적도들의 화약제조소가 있으며 사방에 초병을 세워 놓고 34명이 화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했다.
3. 화약을 제조하는 곳은 함부로 가까이 가서 사격하면, 폭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전위부대였던 한국군을 멈추게 하고, 일본군에게 습격을 맡겼으며 宮本 少尉가 이를 지휘하였다. 한국군은 이 읍 입구에 멈추어 사격준비를 하게 하였다. 습격대가 갑자기 적의 초병에게 공격하였으므로 적도는 뒤쪽 산으로 진지를 옮겼다. 화약제조소에 대한 사격을 금지시키고 산 위의 賊徒를 격퇴하였다. 오후 3시 50분 화약제조소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4. 화약제조소는 커다란 초가집이며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었다. 재료와 기구도 얼마간 구비되어 있었으며 또한 초석 약간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 창설된 관계로 비축되어 있는 화약은 없었다(기구는 파괴하고 초석은 물 속에 던졌다).
5. 적도는 불의의 습격을 만나 당황해서 도주하였다. 2명의 賊徒가 그 화약제조소 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우리 병사가 그 곳에 들어가자 창을 갖고 저항해 오는 자가 있었다.

彼我死傷者

我軍	없음
賊徒	전사자 11명, 부상자 미상
탄약 소비	
日本軍	160발 <sup>7)</sup>

이 자료는 일본후비보병 제19대대 中尉 白木誠太郎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일본군은 12월 13일 오후 3시경에 고산현에 있는 화약제조소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12월 13일은 양력으로 앞의 자료에서 이규태의 관군이 '(11월) 17일에 고산(高山) 산천리(山川里)에 도착하여 저 무리 수백 명과 접전하여 30여 명을 살해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바로 11월 17일(음력)과 같은 날이다. 따라서 이는 관군과 일본군이 함께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군은 동학농민군을 공격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하였고, 일본군은

7) 국사편찬위원회, 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화약제조소를 공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하였다고 보여진다.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동학농민군이 화약을 제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사료와 지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로 고산 산천리(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천마을)가 동학농민군의 화약제조소였다는 점이다.

高山縣附近 戰鬪詳報

(1894년 12월 14일)

中尉 白木誠太郎

1. 栗谷邑 전투 후 賊徒의 퇴각방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枝隊가 목적인 대로 高山縣으로 가서 임무를 완수하려고, 12월 14일 오전 8시 고산현을 향해 전진하였다.
2. 14일 오전 10시 고산현에 도달했다. 이 현의 주위를 포위하고 縣內를 수색했더니, 縣官과 주민이 모두 없었다. 그래서 현 청사 근방에서 宿舎하려 하였으나, 오전 11시 적도 500~600명이 북쪽 산 위로부터 습격해 왔다. 그 기세가 아주 맹렬했다. 枝隊는 이에 맞서기 위해 현의 북쪽 끝에 모였다.
3. 적도는 우리가 모인 것을 보자 일제사격을 5~6회 하였다. 그 총알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므로 일본군을 중앙에, 한국군을 좌우에 산개시켰다. 적도는 중앙을 향해 완강한 저항을 하였다. 이에 중앙에 있던 일본군은 분투·전진해서 적의 진영으로 다가갔다. 적군 2~3명이 쓰러지자 말·깃발·화약 등을 버리고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군은 이 기세를 몰아 질주해서 산 위에 올라가 적의 진지를 모두 점령하였다. 이 때가 오후 1시.
4. 한국군에게 멀리까지 추격하게 했더니, 적도는 대부분 礪山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 彼我死傷者

我軍            없음

賊徒            전사자 16명, 부상자 미상

◎ 노획품

화약약        10관

화승총        10정  
 창            6자루  
 깃발         10폭  
 말            4마리

말은 짐바리 말로 쓰고 그 외는 불태우고 화약은 물 속에 던졌다.

◎ 탄약 소비

日本軍        140발    計 1,887발

韓國軍        1,747발<sup>8)</sup>

이 자료는 일본후비보병 제19대대 中尉 白木誠太郎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1894년 12월 14일 일본군(관군)은 고산현 관아 근처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때 동학농민군은 500~600명이었으며 관아 북쪽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목숨을 잃었고 퇴각한 농민군은 여산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894년 11월 18일(양력 12월 14일) 큰 규모의 전투가 고산현 관아 근처에서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Ⅲ.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위치 검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삼례에서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사료들도 많이 확인된다. 가장 주목 되는 사료는 「전봉준공초」이다.

을미 2월 19일 전봉준 5차 문목 일본영사 문초[乙未 二月 十九日 全琫準

8) 국사편찬위원회, 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五次 問目 日本領事 問招

문(問) : 삼례(參禮) 기포(起包)의 무리는 몇이었느냐?

공(供) : 4,000여 명이외다.

문(問) : 그 뒤 접전(接戰)은 어느 날에 있었는고?

공(供) : 삼례(參禮)로부터 출발한 뒤 20여 일에 처음 접전(接戰)함이외다.9)

위의 내용은 「전봉준공초」 중에서 1895년 2월 19일 일본영사가 심문한 내용이다. 일본영사는 삼례기포의 참여인원은 몇 명이냐고 물었고, 전봉준은 4,000명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영사는 다시 그 뒤에 접전은 언제 있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전봉준은 삼례로부터 출발한 한 20여 일 뒤에 접전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바로 삼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삼례에서 시작되었음을 직접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삼례가 2차 봉기가 있었던 것임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行全羅道觀察使 兼都巡察使 親軍武 南營外使 爲臈移事]

金溝의 院坪에서 東學徒를 불러 모은 괴수 全瑋準 등이 이미 順化되었다가 다시 소요를 일으킨 연유는 이미 아뢰었습니다만, 이달 14일 申時경에 전봉준은 參禮驛에서 匪徒 800여 명을 인솔, 포를 쏘고 북을 울리면서 全州城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이 저물자 그는 臣의 병영 근처에 있는 군기고로 들어가서 총 251자루, 창 11자루, 環刀 442자루, 鐵丸 및 각종 물품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탈취해 가더니 다시 영내의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둔 물품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7월경 摠制營鎭에서 南營의 兵丁들은 解禁할 때 놔두었던 화포 74문, 탄환 9,773개, 총알 4만 1,234개, 環刀 300자루도 탈취하여 오후 7시경에 삼례 지방을 향해 갔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해

9)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권, 2014.

괴한 거동과 날뛰는 양태는 이 시대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은 그를 제압하지도 못하고 방어하지도 못하여 이처럼 병기를 빼앗겼으니, 자신의 직무에 태만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너무도 황공하여 처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유를 적어 아뢰옵니다. 이 狀啓는 등사하여 보내오니 이 關文을 보내실 때, 그 사실을 조회하신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되므로 다시 이 關文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의 關文을 軍務衙門에 보냄.

開國 503년 9월 15일<sup>10)</sup>

이 내용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일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라관찰사가 군무아문에 보낸 내용을 일본공사관에서 보고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된다. 이 문서는 1894년 9월 15일(음력) 전라관찰사가 작성하여 군무아문에 보낸 것으로 자신의 직무태만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국왕에게 올린 글이다. 전라관찰사의 직무태만의 내용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들어와 무기를 탈취해 갔는데, 전라관찰사는 이를 전혀 막지 못한 것이다. 이때 농민군이 탈취한 무기는 화포 74문, 탄환 9,773개, 총알 41,234개, 환도 300자루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월 14일 전봉준이 동학농민군 800여명을 이끌고 삼례역에서 출발하여 전주성에 들어왔고, 다시 무기를 탈취하여 다시 삼례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즉 이는 9월 14일 이전에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이 삼례에 집결해 있었고, 9월 14일 이후에도 삼례에 집결해 있으면서 무기를 확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삼례가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터임을 증명되는 것이다. 「전봉준공초」의 다음 내용은 이를 좀더 확실하게 증명해준다.

10) 국사편찬위원회, 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을미 3월 7일 전봉준 4차 문목 일본영사 심문[乙未 三月 初七日 全琫準  
四次 問目 日本領事 審問]

문(問) : 네가 작년 10월 다시 봉기한 날짜는 어느 날이냐?

공(供) : 10월 12일 사이 같으나 상세히 알지 않습니다.

문(問) : 삼례(參禮)에서 다시 봉기하기 전 너는 어느 곳에 있었느냐?

공(供) : 제 집에 있었습니다.

(중략)

문(問) : 이 서찰(書札)은 삼례(參禮)로부터 나온 것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이 서찰(書札)의 달과 날은 분명히 9월 18일인즉 어찌 10월 삼  
례(參禮)의 회합(會合)에서 나올 수 있느냐?

공(供) : 지난 공술(供述)에서 10월이라고 하였는데 9월인 것 같습니다.<sup>11)</sup>

이 내용은 1895년 3월 7일 일본영사가 심문하고 전봉준이 답한 것이다. 일본영사는 1894년 10월 봉기한 날짜는 언제냐고 물었고, 전봉준은 10월 12일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심문이 끝나갈 무렵 다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전봉준은 ‘지난 공술에서 10월이라고 하였는데 9월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를 정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봉기한 날짜는 9월 12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일본영사는 당시 양력을 기준으로 질문하였고, 전봉준은 음력을 기준으로 답을 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착오라고 보여진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일자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자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날짜를 9월 12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일본영사는 삼례에서 봉기하기 전에 어디 있었는가를 전봉준에게 질문하고 있다. 즉 삼례에서 봉기하였다는 사실은 일본영사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

11)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권, 2014.

을미 3월 7일 전봉준 4차 문목 일본영사 심문[乙未 三月 初七日 全琫準  
四次 問目 日本領事 審問]

문(問) :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대궐(大闕)을 범했다는 것은 어느 곳에  
서, 어느 때에 들었느냐?

공(供) : 7월 사이에 처음 남원(南原) 땅에서 들었습니다.

문(問) : 그렇다면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귀화(歸化)하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었느냐?

공(供) : 이는 도청도설(道聽塗說)이었습니다.

문(問) : 이 말을 들은 뒤 무리들을 일으켜 일본(日本)을 공격(攻擊)하겠  
다는 거사(擧事)는 처음 어느 땅에서 의논하였느냐?

공(供) : 삼례역(參禮驛)입니다.

문(問) : 특히 삼례(參禮)에서 이 거사를 의논하였느냐?

공(供) : 전주(全州) 부중(府中)의 외곽(外廓)에서 저막(邸幕)이 조금 많은  
곳으로는 삼례(參禮)만한 곳이 없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중략)

문(問) : 삼례(參禮)에 이르러 누구 집에 모였느냐?

공(供) : 저막(邸幕)일 뿐입니다.

문(問) : 삼례(參禮) 땅에 본디 아주 친한 집이 있었느냐?

공(供) : 처음부터 아주 친한 자가 없을 따름입니다.

문(問) : 삼례(參禮)의 호수(戶數)는 얼마나 되느냐?

공(供) : 100여 호(戶)입니다.

문(問) : 네가 거하던 근처(近處)에는 100여 호(戶)의 시골 마을이 없지  
않을 터인데 특히 여기에 모인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공(供) : 이 땅은 도로(道路)가 네 곳으로 통하고 역촌(驛村)이기도 했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중략)

문(問) : 그 때 삼례(參禮)에 소위(所謂) 의병(義兵)으로 모인 자는 몇 명  
이나 되었느냐?

공(供) : 4,000여 명이었습니다.

문(問) : 이 무리를 데리고 처음 어느 곳으로 향하였느냐?

공(供) : 처음 은진(恩津), 논산(論山)으로 향하였습니다.

(중략)

문(問) : 삼례(參禮)에서 규합(糾合)한 일은 모두 너의 손에서 나왔느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그렇다면 모든 기포(起包)에 관한 것은 모조리 네가 주도(主導)한 바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sup>12)</sup>

위의 내용은 「전봉준공초」1895년 3월 7일, 일본영사가 묻고 전봉준이 답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전봉준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봉기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봉준의 직접적인 답을 통해 2차 봉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봉준은 2차 봉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 삼례역이라고도 하였다. 즉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은 삼례에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2차 봉기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 영사가 왜 삼례에서 봉기하였는지를 묻자, 전봉준은 삼례는 도로가 네 곳으로 통하고 역촌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부 외곽에 저막(邸幕)이 많은 곳이 삼례였기 때문이라고도 답하고 있다. 삼례를 봉기터로 정한 이유는 전주부와 인접하고 있고, 교통의 요지로서 복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 삼례에 모인 동학농민군의 규모는 4,000명이며 2차 봉기는 전적으로 전봉준이 주도한 것임을 전봉준의 답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삼례가 2차 봉기터임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 장소를 2차봉기의 핵심지 또는 중심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봉준공초」

---

12)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명국역총서』 12권, 2014.

에서 2차 봉기를 어디서 모의했냐고 묻자 전봉준은 삼례역이라고 답하고 있다. 여기서 삼례역이라고 한다면 이는 삼례역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1895년 9월 2일,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츠치(内田定槌)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공사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후 봉준은 일본 군대가 대궐을 침입하였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탄하려는 뜻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일본 거류민을 국외로 내쫓을 목적으로 재차 擧兵을 도모하였다. 전주 부근에 있는 參禮驛은 토지가 광활하고 전라도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같은 해 9월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거쳐 三禮驛에 도착하여 募兵 본부를 이곳에다 정하였다.<sup>13)</sup>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바로 삼례역에 도착하여 모병본부를 이곳 즉 삼례역참에 정하였다는 것이다. 모병본부를 설치한 곳이 바로 삼례역 즉 삼례역참이라고 할 수 있다. 삼례역참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가장 핵심적 공간이자 지휘본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전주 근처의 삼례역(參禮驛)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에 그 해 9월 쯤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起兵)하는 대도소(大都所)로 삼았다. 그리고 진안(鎭安)에 사는 동학 접주 문계팔(文季八)·전영동(全永東)·이종태(李宗泰), 금구에 사는 접주 조준구(趙駿九), 전주에 사는 접주 최대봉(崔大奉)·송일두(宋日斗), 정읍(井邑)에 사는 손여옥(孫汝玉), 부안(扶安)에 사는 김석운(金錫允)·김여중(金汝中)·최경선(崔卿宣, 위의 慶善)과 동일인·송희옥(宋熹玉) 등과 모의하여 지난해 3월 이후에 피고와 함께 일을 했던 비도의 괴수 손화중 이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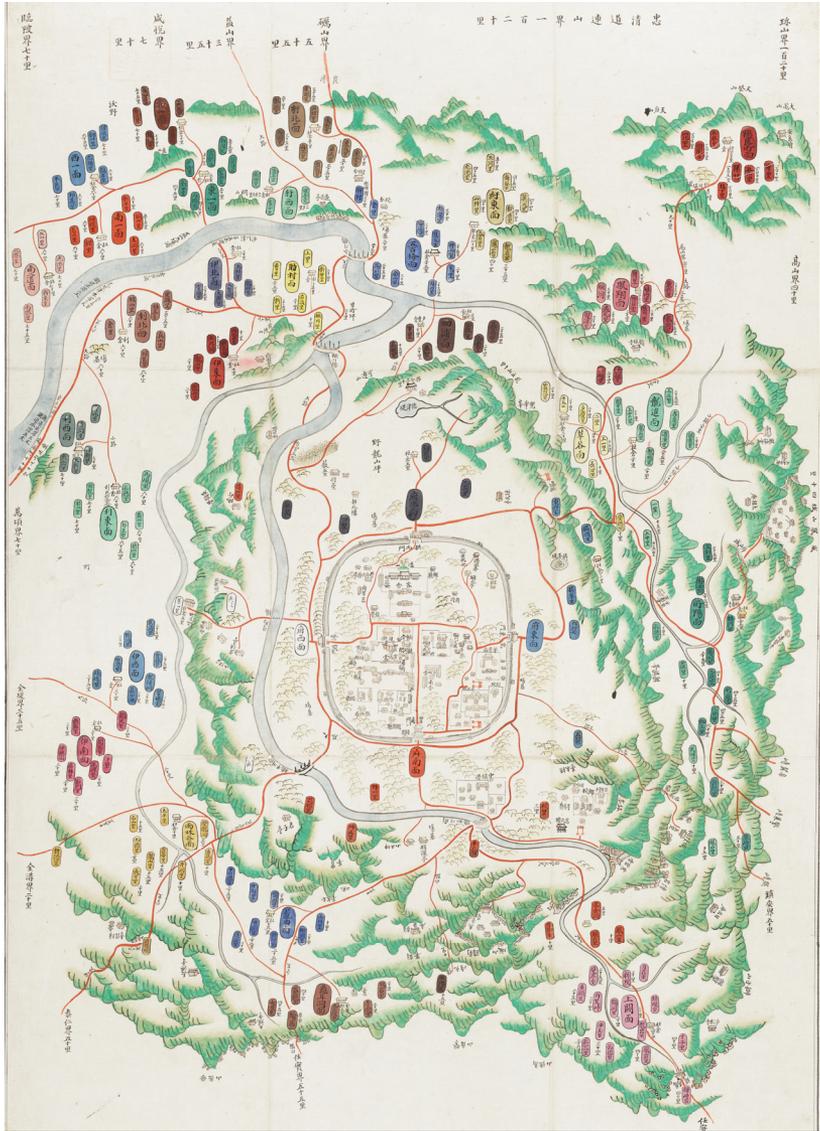
13) 국사편찬위원회, 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주·진안·흥덕·무장·고창 등지의 원근(遠近) 각 지방의 인민에게 격문을 돌리거나 사람을 보내 유세를 하였다. 전라우도에서 4,000여명의 군사를 모아 곳곳의 관아에 들어가서 군기(軍器)를 강제로 빼앗고, 각 지방의 부민(富民)으로부터 돈과 곡식을 징발하여 삼례역을 떠나가면서 무리를 모집하였다.<sup>14)</sup>

이 자료는 「전봉준 판결선고서」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9월 태인을 떠나 원평을 거쳐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起兵)하는 대도소(大都所)로 삼았다. 즉 삼례 역참을 기병한 대도소 즉 본부로 삼고 있다. 대도소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민군 지도부가 모여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등을 하는 곳으로 농민군 활동의 핵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삼례역참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가장 핵심적 공간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는 바로 삼례역참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삼례역참터가 구체적인 어디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1894년 당시에 삼례는 전주부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고산현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1934년 전주의 중심만이 전주부가 되고, 전주의 외곽이었던 상관, 구이, 소양, 봉동, 삼례 등과 고산현을 합쳐 완주군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이 만들어졌다.

---

14) 「전봉준판결선고서」,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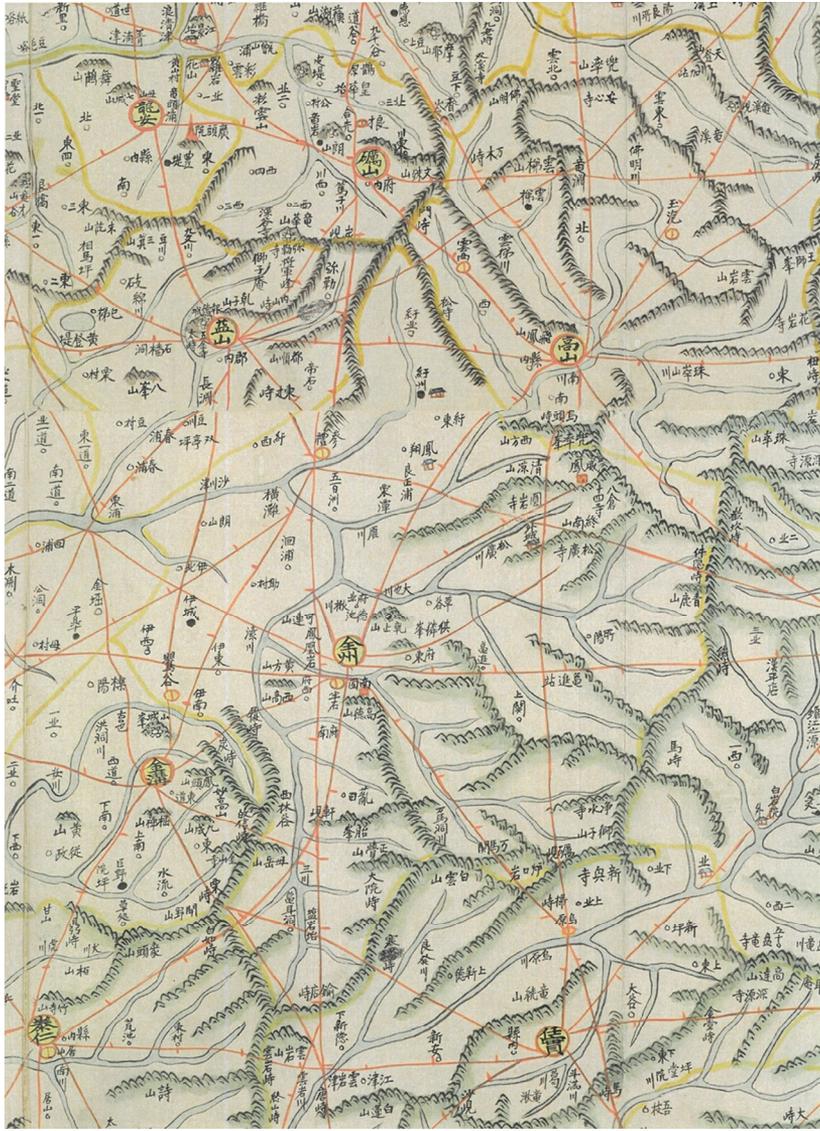


〈그림 2〉 전주지도(규장각, 1872)



〈그림 3〉 전주 지도(1872, 규장각) 삼례지역

당시 전주부에 속해 있었던 삼례역에는 중앙에서 임명된 관리인 찰방(종6품)이 있었다. 삼례찰방은 전라도지역의 삼례역, 양재역, 재곡역, 소안역, 반석역, 앵곡역 내재역, 부흥역, 영원역, 거산역, 오원역, 갈담역, 천원역 등 12개의 속역을 관할하였다. 〈그림 4〉의 동여도는 金正浩(?-1864)가 만든 大東輿地圖를 뒤에 筆寫한 全國彩色地圖로 제작년대는 19세기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례는 전주의 북쪽에 위치에 있으면서 사방으로 통하는 공간으로 교통의 요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동여도의 삼례역(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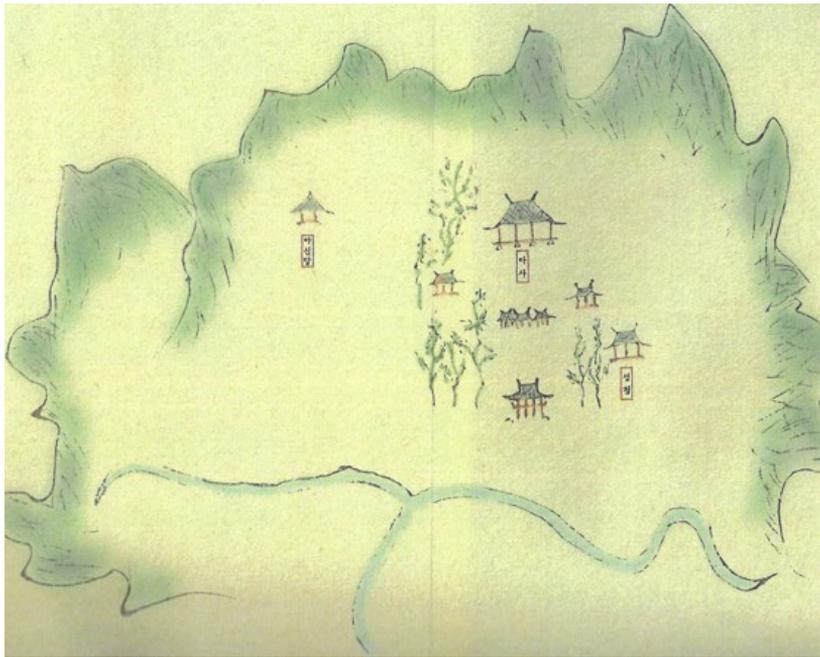
〈그림 5〉 광여도(전주목, 규장각) - 삼례지역



〈그림 6〉 전주 지도(규장각) - 삼례지역

〈그림 5〉과 〈그림 6〉는 해동지도, 광여도 등 조선시대 고지도에서 삼례를 표시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삼례관(三禮館)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가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때 이때도 삼례가 전주부에 속하였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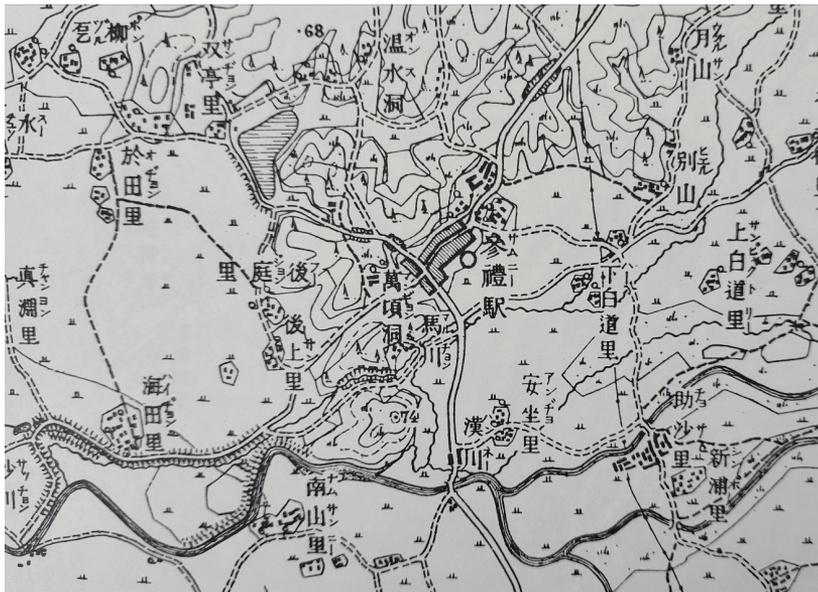
〈그림 7〉은 『여지도서』(전주보유편)의 삼례도역지도(三禮道驛誌圖)이다. 여기에는 총 9채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삼례찰방의 집무실인 아사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성청, 왼쪽에 마신당이 있으며, 2층의 문루가 아사 정면 남쪽에 있고, 아사와 문루 사이에 세 채의 건물이 붙어있으며, 아사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1채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앞쪽으로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다. 삼례역참 건물 배치를 알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지도이다. 이를 통해 대략의 삼례찰방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7〉 『여지도서』(전주보유편)의 삼례도역지도(三禮道驛誌圖)

〈그림 8〉은 일본에서 1895년 측량한 지형도를 1911년 인쇄한 지도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1895년이므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와 거의 같은 지형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지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參禮驛’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

어 있다. 이를 통해 삼례역의 위치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전주보유편)의 삼례도역지도(三禮道驛誌圖)와 비교해 보더라도 삼례역참의 건물이나 위치를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지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 1895년 지형도(삼례역 부근)

〈그림 9〉은 일본이 1915년 측량하고 1924년 인쇄한 지도이다. 여기에는 삼례역에 대한 표시는 없고 이전에 삼례역이라고 표시된 곳에 삼례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삼례리라고 표시된 곳이 이전에 삼례역참터라고 보여진다. 앞의 1895년 지형도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림 9〉 일제강점기 삼례부근 지도

〈그림 10〉는 1914년 작성된 지적도이다. 삼례역참이 있던 자리는 삼례리 1072번지, 1073번지, 1074번지이다. 이는 최진성의 논문 「삼례도찰방역의 경과변화」(『문화역사지리』제23권 제3호, 2011)에서 “삼례도찰방 터는 현재 삼례동부교회가 세워진 일대로 비정된다. 이 터는 1914년의 지적원도(1:1200)와 토지대장에서 확인한 결과 국유지였으며, 현재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072, 1073, 1074번지에 걸쳐 분포하는 약 7,000평의 면적에 해당한다. 토지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1921년(대정10년)에는 삼례학교조합 명의로 구입되어 일본인들을 위한 소학교를 운영하였으며 1072-1번지는 교사들의 관사로 이용되던 곳으로 이전에 찰방역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마굿간 터였다고 한다.(김용석(68세)씨의 말에 의함) 광복 이후인 1964년에는 삼례동부교회에서 구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15)</sup>라고 하여 삼례리 1072, 1073, 1074번지가 삼례역참터이며 현재는 삼례동부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그림 10〉 1914년 지적도<sup>16)</sup>

〈그림 11〉은 현재의 지적도이다. 이전과 비교하여 변지가 분할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072번지, 1073번지, 1074번지가 삼례역참터라고 할 때 현재 이 공간에는 동부교회 외에도 어린이집과 사업체, 그리고 4채의 민가가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의 핵심지역을 삼례역참터라고 상정하고 삼례역참터의 위치를 찾아보았다. 삼례리 1072번지, 1973번지, 1074번지라는 위치를 비정하기는 했지만 확실한 고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확실한 근거라고 하기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 다만 오랫동안 거주했던 마을 주민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최진성, 2011, 「삼례도찰방역의 경관 변화」, 『문화역사지리』 23(3), 50~65쪽.

16)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그림 11〉 현재 지적도<sup>17)</sup>



〈그림 12〉 삼례동부교회

#### IV.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문화유산 지정방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를 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17) <https://map.naver.com/>

같은 과제를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충분히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 1.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에 대한 종합적 학술 용역

삼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학술용역이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차 봉기터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학술용역이 필요하다. 2차 봉기의 전개과정과 의의, 2차 봉기터의 정확한 위치 고증, 2차 봉기 관련 사료의 정리, 2차 봉기터의 발굴, 2차 봉기터의 문화유산 지정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학술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관련 자료 수집 및 학술대회 개최

2차 봉기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2차 봉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 3. 문화유산 지정 추진

문화유산은 기초지자체가 결정하는 향토유산, 광역지자체가 결정하는 시도유산, 국가가 결정하는 국가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동학농민

혁명 2차 봉기터는 향토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단계부터 출발해야 한다.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2차 봉기터의 위치를 고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역사회 여론과 국민적 관심의 증대,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이 더해진다면 문화유산 지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후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자료수집과 지속적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다음 단계로 광역지자체가 결정하는 시도유산 지정을 추진하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가유산을 추진하면 된다. 2차 봉기터의 국가 사적 지정은 적어도 10년의 계획하에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 4. 해당 유적지의 발굴 추진

현재 2차 봉기터를 지도 또는 지적도를 포함하여 문헌자료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차봉기터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굴이 진행되어야 한다.

#### 5.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와 실행

이상의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와 실행 가능성이다. 아무리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자체가 의지가 없고 실행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즉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 실무담당자의 실행력이 함께 했을 때만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확보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이부분이 이를 실행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사실 2차 봉기터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묘수가 필요하다.

## 6. 고창의 예

고창군은 무장기포지를 국가사적으로 전봉준생가터를 전봉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이는 10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고창군은 단체장이 직접 고창기념사업회 대표를 맡기도 하고, 고창군 내에 동학팀을 두어 동학농민혁명을 전담하게 하였으며 중요한 과제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무장기포지의 국가사적지정과 전봉준생가터의 전봉기념물 지정을 위하여 10여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학술용역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도 같이 힘을 합쳤다. 이러한 결과과 무장기포지와 전봉준생가터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이상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의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유산 지정현황을 살펴보고,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위치를 검토하였으며 2차 봉기터의 문화유산 지정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삼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역사적 위상에 맞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2차 봉기터와 비슷한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2차 봉기터 위치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기록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삼례역에 도착하여 모병본부를 이곳에다 정하였다’는 것과 「전봉준공초」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대도소로 삼았다’라는 기록으로, 2차 봉기터를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보여진다. 2차 봉기터의 정확한 위치는 조선시대 지도, 1895년 지형도, 1915년 지도, 1914년 지적도를 종합해 볼 때 삼례리 1072번, 1073번지, 1074번지 일대라고 보여진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2차 봉기터의 국가 사적 지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완주군민, 완주군, 완주군의회,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모든 주체들이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25. 4. 6.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4. 28.

## 참고문헌

### <자료>

- 「1895년 지형도」(삼례).  
「1914년 지적도」(삼례).  
「감결」,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경통」,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광여도」(규장각).  
「동여도」(규장각).  
「의송단자」,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권, 2014.  
「전봉준판결선고서」,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권, 2014.  
「전주지도」(규장각, 1872).  
「종리원사부동학사」,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권, 2015.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권, 2006.  
『여지도서』(삼례보유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국사편찬위원회, 1991.

### <단행본 및 논문>

- 김은정·문경민·김원용, 1995, 『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2,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전라북도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동학농민혁명 일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순철·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최진성, 2011, 「삼례도찰방역의 경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23권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50~65쪽.

〈Abstract〉

## Verification of 2<sup>nd</sup> Site of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s Designation as a Cultural Heritage

Lee, Byeonggyu\*

Event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Wanju Region include the Kyojoshinwon Movement Samrye Assembly (교조신원운동 삼례 집회), 2<sup>nd</sup>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Daedunsan Peasant Army Resistance. Of these, the most historical event was the 2<sup>nd</sup>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2<sup>nd</sup> uprising was an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cluding Jeon Bongjoon, to drive out the foreign forces as the internal interference from Japan became worse after Japanese forces captured Gyeongbokgung Palace and held the King of Joseon hostage. The location of that uprising was Samrye. However, despite this historical importance, there is little interest and there is little effort being made to preserve and maintain this site. What's especially unfortunate is the fact that the exact location of the 2<sup>nd</sup> uprising still hasn't been verified.

As to the location of the 2<sup>nd</sup> uprising, some meaningful records include passages from the 『Records of the Japanese Embassy in Korea』, which states, “They reached Samrye Station and used it as a base for recruiting,” as well as the 『Jeon Bongjoon Reports』, which states, “We reached Samrye Station and used it as a cavalry base”. These records

---

\* Director of research at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are important pieces of evidence that can help verify the location of the 2<sup>nd</sup> uprising. Taking into account the Josean Dynasty map, 1895 topographical map, 1915 map, and 1914 cadastral map, the exact location of the 2<sup>nd</sup> uprising appear to be around Samrye-ri 1072, 1073, and 1074. In order to verify this, we need a more detailed and systematic examination and approach.

It is fitting for the site of the 2<sup>nd</sup>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bellion in Samrye to be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thus a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 the future in accordance with its historical standing. In order for the site of the 2<sup>nd</sup>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bellion to be designated as a national cultural heritage, there needs to be a comprehensive academic effort, collection of related data, holding of academic conferences, excavation of the site, and active effort on the part of the local government.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Site of 2<sup>nd</sup> uprising, National cultural heritage, Samrye, Jeon Bongjoon, Historical site

